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길 기다리며 맡기는 심정으로 가고 있어요”

영생의 길이 마음으로 가는 길인만큼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전라북도 정읍시 오정리라는 마을이 고향인 나는 내장산이 가을단풍으로 물들면 오색물감을 칠한 듯한 아름다운 터널을 친구랑 가끔 걸었다. 내장산을 가을산이라고 할 정도로 단풍의 최고 명소로 손꼽힌다. 단풍은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제일 절정을 이룬다. 친구랑 단풍 길을 걷노라면 앞으로의 진로걱정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마냥 즐거워, 즐겼던 눈이 툭 튀어 나올 정도로 크게 떠지는 것 같았다.

우연한 계기로 정읍제단 예배를 보게 되다

집에서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까지 가려면 걸어서 30분, 버스로는 10분 정도 걸렸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 하루는 도로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방과 후 버스가 오질 않아 평소와 달리 지내던 열기영 아저씨께 봉고차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드리니 아저씨께서 어디를 좀 들렀다가 가자고 하여 갔는데 거기가 바로 정읍승리제단이란 곳이였다. 할 수 없이 열기영 아저씨를 따라 알뜰한 마음으로 예배를 같이 보게 되었다. 예배를 보고 나오는데 정읍제단 책임승사님이라는 분이 관심이 있으면 계속 오라고 하셨다. 그때는 주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질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제단으로 향하여 일주일 동안 다녔다. 일주일 지나니 혼자 다니기가 뭐해서 귀순이란 친구에게 뺑을 사주면서 같이 가자고 하여 같이 갔다.

그렇게 하루 이틀 제단을 쌓는 중에 마침 주님께서 정읍제단에 오셨을 때 식구라며 반갑다고 가까이 오라고 하시면서 “학생! 열심히 나와 보세요”라고 하셨다. 첫눈에 주님이 무섭게 느껴졌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엄하신 분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말할 수 없이 편안하고 좋았다.

그 이후로 21일을 채우는 중에 비디오로 예배를 보는데 종이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더니 조금 있다가는 향기 냄새가 진하게 느껴졌다. 문득 ‘아하!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타는 냄새구나. 그리고 주님의 백합꽃 향기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때는 무거웠던 몸이 이상할 정도로 가벼워지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근심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서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좋았다.

또 주님의 설교 말씀 중 한민족의 역사 이야기하실 때는 뉘를 놓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만큼 실감나게 재미있게 말씀하셨다. 단지파의 이동경로, 단지파의 유래 등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삼손이야기 등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부분을 세밀하게 설명 해주셔서 궁금증이 확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귀순이란 제단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정읍제단 책임승사님이란 제단 식구들의 사랑이 내 마음을 잡아줬기 때문이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이 승사님과 식구들을 통해 보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택제단을 거쳐 삼승 공장에 들어가다

우리 집 형제는 오빠가 4명이고 여동생이 한 명인 4남 2녀 중 내가 다섯째인데 그 중에서 둘째 오빠가 승리제단 나가는 것을 극심하게 반대를 하였고, 어머니께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일곱 분이 계셨는데 모든 선생님께 순언어가 승리제단에 다닌다고 폭로할 정도로 제단에 가는 것을 극구 반대하셨다. 식구들이 그렇게 반대하면 할수록 오기가 나서 더 열심히 거짓말을 하며 몰래 몰래 다녔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전에 취업알선을 받아서 실습을 나갔는데 아산에 삼성계



합창단에서 소프라노로 활동하고 있는 황순업 (사진 앞줄 중앙)

열사인 우성산업이라는 회사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다. 마침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평택제단이 있었는데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예배를 보면서 제단을 몇 달 쌓는 중에 서 책임승사님과 친분이 있는 박기보라는 언니가 역곡제단에서 평택제단에 다니러 왔다가 나를 보더니 3층 공장에 가길 권하였다. 3층 공장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고 절기 행사 때에 승사님을 따라 3층에 가서 길쭉한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은 기억이 있었다. 서 승사님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나는 3층에 가기로 마음먹고, 1992년 10월 어느날 연합예배 때 제단 차를 타고 역곡으로 와서 3층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처음에 지하사무실에 갔더니 책임자 같이 생각되는 정정수 언니가 나를 데리고 가서 후 아이(브래지어 제작 공장 중 하나) 짓는 일을 하루 종일 시켜서 손에 진물이 나고 아팠지만 꼭 참았다.

저녁 10시경에 정미숙 언니가 숙소 방에 데려가서 잠자리를 정해주었는데 서경남 언니랑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잤다. 언니들이 새식구라며 친절하게 대

해주었고, 귀엽게 생겼으며 이뻐해줬다. 처음에는 생소함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본도 좋아졌고, 주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일이 겹쳐서 제단에 못 나오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을 직접 뵈기가 힘들었지만 하루 종일 주님 말씀이 스피커에서 울려 나오므로 옆에 계신 듯했다.

역곡에 온 지 얼마 후 집에서 연락이 와서 미심하는 회사에 다닌다고만 했고, 야단 맞을까봐 제단은 언급하지 않았다.

주님의 구속으로 제단과 공장은 혼란스러웠지만 나는 평온했다

내가 3층 공장에 올라온 후에 한 달 있다가 정읍에서 친구 귀순이도 3층으로 올라와서 같이 일을 하게 되어 정말 기뻐했다. 그렇게 공장생활이 익숙해지고 정이들만 할 때 집에서 부모님과 오빠들이 승리제단 소속의 공장이라는 것을 알고는 찾아와서는 나를 데리고 집으로

갔다. 강제로 끌려가다시피 하여 집에서 생활하자니 3층 공장도 주님의 비디오편을 생각해가서 언젠가 다시 가겠다고 결심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는 중에 3층 공장에 있는 친구 귀순이가 “왜 공장에 안 오냐?”라고 전화가 왔다. 그래서 집에 부모님이 마음 놓고 외출하셨을 때 집에서 빠져나와 3층 공장에 다시 오게 되었다. 그날이 바로 주님께서 1차 구속 되던 날인 1994년 1월 10일이였다.

공장에서나 제단에서는 초비상이였다. TV에서는 주님이 구속되는 모습이 나오고 제단을 비방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정지않았다. 공장식구들은 그날부터 잠자리를 밀실로 옮기는 사람과 또 개인적으로 방을 얻는 사람, 또 알고지내는 권사님 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등 각각 흩어져 생활하였다. 그러나 나는 아무 곳에도 가기가 싫었다. 그래서 공장에서 잠자던 곳에 그냥 있기로 했다.

세상이 이렇게 떠들썩하게 시끄러운데도 이상하리만큼 내 마음은 동요가 없었다. 우리 주님이 불쌍하기만 하였던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그래도 주님이 빨리 나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지냈다.

주님께서 옥중에 계시는 동안 신앙이 깊지 못한 나에게 항상 나를 이끌어 주고 감싸주는 고참 언니들이 주님의 기사이적의 능력을 행하신 이야기도 해주고, 초창기 은혜 받은 이야기도 해주고 해서 주님이 구세주라는 확인에는 흔들림이 없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은 채 지낼 수 있었다.

보광하신 뜻을 몰랐던 무지몽매함이 안타까웠다

7년 옥고를 치르신 주님께서는 2000년 8월에 출옥하셨다. 출옥하신 주님은 제일 먼저 공장에 오셔서 그간의 사정을 말씀해주셨고, 예전처럼 주님은 제단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특전대 활동을 벌이셨다.

그러다가 출옥하신 지 3년 만에 다시 구속되었고, 무죄가 되신 후 돌연 보광하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인가. 어안이 병병하여 말이 안 나왔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제단에서는 보광이라고 하였다. 보광(普光)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낯설지만 하였다. “보광이라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이니까?”라고 어느 승사님에게 여쭙 뵈더니 구세주 생미륵불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감로이슬성신으로 인류구원의 천지공사를 하시다가 때가 되어 인간의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원래상태인 빛으로 원시반본(原始返本) 하신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원시반본 하시게는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아직 마귀가 판을 치는데...’ 하는 나의 생각도 잠시 그 다음날 주님 비디오편 말씀에 보광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말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싹 사라질 거야. 나를 볼 수 있을 때 실컷 봐” “이 사람은 영원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생명체예요. 영원전부터 살고 있는 생명체인데 지금은 사람 몸을 빌려 입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신으로 원시반본할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원시반본하면 아무도 볼 수 없어요”) 라는 때 그때는 주님과 영원무궁토록 살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새삼 놀람을 금할 길이 없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무지몽매(無知蒙昧)함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있어도 저런 일이 있어도 맡기는 심정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며 나 역시 이 영생의 길이 마음으로 가는 길인만큼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황순업(43세, 공장 여청)

대예언자로 서양에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있다면 동양에는 조선 중기 천문학 교수(天文學教授)로 지낸 격암(格菴) 남사고 선생이 있다. 남사고의 격암유록에는 진인(眞人)을 알아보는 법을 논했는데, 첫째 감로해인을 들고 나와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신선으로 거듭나게 하는 주인공이며, 둘째 천지공사가 소사(素砂)에서 시작하고 소사에서 끝났다고 예언한 대로 소사 역곡승지(驛谷勝地)에 승리제단을 건립하여 역사하는 주인공이요, 셋째 정도령은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한다고 예언한 대로 한반도로 불어오는 태풍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장마를 못지게 하여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풍년이 들게 하는 주인공으로서 십승진인(十勝眞人)임을 알 수 있다. 십승진인은 일자종횡(一字從橫)으로 된 십획수(十劃數)의 성씨(姓氏)를 가졌다고 예언하고 있는데, 많은 성씨 글자 가운데 오직 무리 조(曹)자만 가로세로로 갖는 동시에 총획수 10획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차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감림할 때에 조(曹)씨로 와서 인류구원의 역사를 펼치겠다는 뜻이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

격암유록의 글을 믿지 않는 자는 망하게 된다고 경고하며, 스스로를 삼가며 근심하며 속세의 정(情)을 끊고 하나님(十勝人)을 찾지 않으면 천당(弓村)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구배의연한 사후천당이라는 옛것을 혁명하여 살아 영생이라는 신학문(新學問)을 따라야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격암유록의 구절을 간추려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西學大綱 天運也 天道者生 無道者死 (서학대지 천운야 천도자생 무도자사) ; 서학이 크게 성하는 것은 하늘이 정한 운이다. 하나님의 도를 닦는 자는 살 것이요 도를 닦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天運逆必亡當害 守從聖說 所願成就 此書不言 英雄自亡 (천운역필망당해 수종성설 소원성취 차서불신 영웅자망) ; 천운(天運)을 어겨 거슬리면 필히 멸망당하거나 마땅히 해로움이 생길 것이나, 오히려 성인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면 소원성취하게 되니, 이 책의 글을 믿지 아니하면 영웅(英雄)일지라도 스스로 망하리라. - 세론시(世論視) 慎謹篤行 自古國家興亡 莫先天神輔護 謹化朝靈瑞光濟蒼生 英雄君子自西自東 集合仙中矣 (신근독행 자고국가흥망 막 좌천신교회 근화조선서광제창생 영웅군 자자서자동 집합선중의) ; 스스로를 삼가며 근심하며 독실하게 행하라. 자고며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있어 왔으니 막연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돌보아주시심을 얻으려 하지 말라. 무궁화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땅에 서광이 비치어 창생들을 구제하니 동서양의 영웅 군자들이 모여 들어올 때에는 신선의 나라 중원국이 되느니라. 塗炭百姓 急覺大夢 不遠將來目前之禍矣 可畏可畏矣 (도탄백성 급각대몽 불원장래목전지화의 가애가애의) ; 도탄에 빠져있는 백성들이여! 급히 큰 꿈에서 깨어나라. 머지않은 장래에 눈앞에 화가 닥쳐오며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격암유록(格菴遺錄)이 던지는 메시지



경북 울진군 격암선생 별묘(別廟)

가히 애처롭고 애처롭구나. - 말운론(末運論) 不尋谷離難免塗炭 黃金之世 愚者何辨 入於俗離 (불심속리난면도탄 황금지세 우자하변입어숙리) ; 속세의 정(情)을 끊고 하나님(十勝人)을 찾지 않으면 불속으로 뛰어드는 하루살이와 같은 삶을 면(免)키 어려우리라. 황금만능에 눈먼 자가 어찌 속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집(弓村)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 - 세론시(世論視) 革舊從新 訪道覺 (혁구종신 방도각) ; 옛것을 혁명하여 새로운 것을 따라야 도를 찾고 깨닫게 되니라. - 은비가(隱秘歌)

強仁柔存 革心從心 舊染者死 從新者生 (강방유존 혁심종심 구역자사 종신자생) ; 자존심이 강한 자는 망하고 운운 겸손한 자는 살아남고, 또한 옛것에 매달리는 자는 죽고 새로운 것을 따르는 자는 영생한다. - 성산심로(聖山心路) 西學入道天堂人(서학입도천당인)들 天堂(천당) 맑은 참 조으나 九萬長天(구만장천) 멀고머니 一平生(일평생)엔 다 못가고 - 가사총론(歌辭總論)

때를 알고 속히 마귀의 탈을 벗고 거듭나야

삼역대경 팔괘구궁 십승장에는 일락

것이다. 다시 말해서 먼저 십자가를 사용하는 종교단체를 따르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십자가를 쓰는 마귀를 따르지 말고, 중천운(中天運)이 열리는 때에 양기를 받을 수 있는 백십승(白十勝) 즉, 이긴자 하나님의 신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을 권유한다. - 도부신인(桃符神人) 速脫離群罪人得生 遲脫離群善人不生 萬物靈長從鬼何望 鬼不脫離 (속탈수군 죄인득생 지탈수군선인불생 만물영장종귀하망 귀부지각) ; 죄인일지라도 ‘나’라는 마귀의 탈(獸群)을 속히 벗으면 영생을 얻게 되지만, ‘나’라는 마귀의 탈을 벗는 때를 놓쳐버리고 뒤늦게 벗고자 하면 착한 사람일지라도 영생하지 못한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복종한다면 어찌 영생을 바라겠는가. 마귀의 탈을 쓰고 있는 자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니라. - 성산심로(聖山心路) 寒心(한심)하디 世上事(세상사)여 死未生初此時(사말생초차시)로다 陽來陰退山運(양래음퇴산운)에는 白寶座(백보좌)의 神判(신판)이라 非禮勿視非禮勿聽(비례물시비례물청) 行住坐臥端正(행주좌와단정)하소 先聖預言明示(선성언명시)하라 逆天者(역천자)는 亡(망)하리라 ; 죽음의 세상이 끝나고 영생의 시대가 시작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의 신이 오고 마귀세상이 물러가는 신선의 운에는 백보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라. 겉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행실을 단정히 하소. 선지성현이 예언한 것을 밝게 보아라.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망하리라. - 성운론(聖運論)*

박태신 기자